

국립공원 봉우리 케이블카 설치 못한다

환경부, 기준 마련... 등반코스는 가능 시민단체 "조치 미흡, 원천봉쇄해야"

앞으로 국립공원 내 주요 봉우리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국립공원 삭도(索道·이하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원칙적으로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과의 마찰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열린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삭도란 케이블카·곤돌라 등 로프를 이용한 장거리 운반장치를 말한다. 이번 검토기준의 핵심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신청한 주요 봉우리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형·지세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정상등반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두고, 시설 설치·운영 등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상통제 방안 제시,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한다.

또 정류장 및 지지 시설은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 등에서 서식·분포하는 고유한 식생 등 생물다양성 및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생물다양

성과 보전 가치가 높은 곳,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산란처는 피해야 한다.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특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지역, 문화재와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구에도 정류장이나 지주를 세울 수 없다. 산로의 위치도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종류의 주요 산란처나 지형 특성상 숲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은 경우하면 안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봉우리 정상까지 등반함을 통해 주요 산에 걸린 부하를 케이블카를 통해 분산시켜 국립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양양, 구례, 남원, 산청, 함양, 영암, 사천 등 7곳으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계석봉, 율출산 천황봉 등 국립공원의 주요봉우리에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번 검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공익·경제·기술성 등 4개 분야를 고려해 다음달 23일까지 보완서를 제



정부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국립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봉우리와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절대 보전을 주장하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국장은 "현재 설치된 케이블카들도 수익도 내지 못하고 환경만 훼손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국립

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지자체들의 발상은 우선 설치하고 보자는 생각이다. 만약 지역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국립공원 훼손은 볼 보듯 뻔하다"며 "앞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난립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분뇨 불법처리 축산농가, 보조금 못 받는다

영산강환경청, 하천주변 10km 내·민원발생 농가 90곳 점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원들로 9개의 팀을 구성, 오는 20일부터 5일간 하천 주변 10km 이내 지역, 민원 발생 축산농가 등 관내 2940곳의 중점관리농가 가운데 90곳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집약화·기업화돼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하천가에 위주로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해 4대강 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 자치단체 상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축산농가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km 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 허가 이상 대규모 배출시설 1만4000곳 중 3500곳이 넘는 축사밀집지역,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 적발된 축산농

가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또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 북부지역 한파... 네이밍구 영하 50도

오지 주민 1000여명 고립, 가족 집단 폐사

중국 북부지역에 최저 기온이 영하 50도를 밑도는 극한의 추위가 닥쳐 가족들이 집단 폐사하고 수천 명의 오지 주민이 고립됐다고 국제재선(國際在線)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네이밍구와 칭하이(靑海), 헤이룽장(黑龍江) 등 북부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를 밑도는 혹한이 1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네이밍구(內蒙古) 후룬베이얼(呼倫貝爾)의 수온주는 영하 50.7도까지 내려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년보다 기온이 8~10도 낮은 혹한이 계속되면서 목축주대인 칭하이와 네이밍구에서 가족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이밍구에서 500여 마리의 소와 양이 얼어 죽었고 칭하이 고원지대에 위치한 간더(甘德)현에서만 26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실제 북방지역의 한파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칭하이 일대에는 최근 강풍을 동반한 폭설까지 내려 곳곳에서 교통이 끊겨 오지 주민들이 고립됐다. 네이밍구에서는 적어도 1000여명의 주민이 고립돼 한파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은 고립된 주민들에게 솜옷과 이불, 가족 사료, 축사 보온 설비를 긴급 지원했다.

한파의 영향으로 산둥(山東)성 라이저우(萊州) 앞바다와 랴오닝(遼寧)성 라오둥(遼東)만 일대 수천km의 해역에 두께 35cm 내외의 얼음이 얼어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했다.

중국 기상대는 지난 5일 오전 10시를 기해 북방지역에 한파 청색경보를 발령했으며 오는 14일께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남아공은 폭염

케이프타운 주변 40도 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관광지 케이프타운이 위치한 웨스턴케이프주에 폭염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프타운은 휴일인 5일 섭씨 37도의 무더위를 기록했으며 인근 위세스터의 불란드마울과 웰링턴 등지는 무려 40도가 넘었다고 뉴스포털 '뉴스24'가 현지 일간 '디 버거'를 인용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기상청은 웨스턴케이프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리는 한편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는 만큼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도록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케이프타운 남쪽 외곽의 호트베이에 산불이 발생, 소방차 11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뉴스24'는 덧붙였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 케이프타운은 여름인 11월~2월의 최고기온이 통상 26도이며 연평균 기온은 17도이다. /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 2년... 온실가스 1147만톤 감축

목표량의 4.7%... 경제효과 2167억원

2010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5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결과 1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그린파워는 발전기 5·6호기 건설사업을 하면서 발전소 증류가 아닌 폐기물에너지인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 370만 톤에서 165만 톤 감축시켰다.

또 포스코파워 측도 LNG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건설사업에서 고효율발전설비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녹지 및 공영조성 등을 통해 연 131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년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감축량 1147만 톤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 4400만 톤의 4.7%에 해당된다.

2011년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면 실시하고 있는 2012년부터 18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지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영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 (매매나 임대)

〈건물 구함〉

- 일반 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 창고와 공장건물

〈토지 구함〉

- 지 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 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20개 대출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상가건물 매도〉

- 매도가 30억 보증금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 접, 농지전용완료,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2(725평) 평당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m2(3,468평) 평당 70만원
- 광산구 양동 계획관리지역 28,845m2(8,726평)매도가 21억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물180평 감정가5억9천만 최저가4억2천만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로변(상업지역) 대지330평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일반상업3층건물 대지60평 건물132평 감정가5억7천만 최저가4억

단독주택

- 남구 봉산동 2층단독주택 대지56평 건물70평 감정가1억8천만 최저가1억2천만

근린주택

- 동구 계림동 4층상가주택 대지53평 건물193평 감정가4억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방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신안군 자문면 고장리 해수욕장부근 관리지역101평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일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전통 침·뜸·부항

미국 이민 및 해외의의사 진출 설명회

-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원론,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광주 26기 2월 11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분원 위치 : 송촌역 1번출구 화정명망향 50m직진 3층

미국이민 및 해외진출 설명회

광주분원 2월 11일(토) 오후 2시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정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